
2017-11-17 연세대, 학부대학

교양교육의 새 위상과 학부대학의 과제

손동현 (대전대 석좌교수)

한국 대학의 현재 상황

* 경직된 '전공학과 중심주의'

- 직업교육 지향적인 소비성 응용학문 분야의 번창
- 지식 생산성 기초학문분야의 위축
-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학문분야의 '전공학과' 폐쇄
- 연구자가 교수직을 얻지 못해 국가적 차원에서 고급인력 낭비
- 학문후속세대 고갈

→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적 기반이 총체적으로 붕괴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전국대학 3,4학년 조사 (2014)

인문계, 전공만족도

“학과수업이 진로에 도움 안 된다” 39.3%;

“복수전공하고 있다” 48.2%

- 전공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체제에서는 기초학문분야의 '전공학과'를 거점으로 기초학문분야의 학문적 기반을 보전, 강화 시킨다는 전략은 실패 확실
- 이 분야의 '전공학과'를 폐쇄하지 말라는 요구는 학생들에게 타의 적으로 특정 기초학문을 '전공하라'는 요구가 됨: 비현실적, 비교육적

대학 내적 인구사회학적 여건의 변화

- 학령인구 감소

2015년 대학정원 56만

2025년 고교 졸업생 40만, 대학 진학률 70%

현 정원의 절반 미충원

※ 조영태 외, <아동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2014.11.

- 신생아수 2013년 45만 → 2034년 32만

- 대입 수험생 2014년 66만 → 2034년 39만

[20년후 대학의 40%는 폐교해야]

교육구조 재편 필요성의 문화사회적 배경

- '디지털 혁명'이 '정보화'를 광범화, 급속화시킴. '글로벌화'와 동반
- 의사소통 활동에서 시공적 제약이 거의 없어짐
 - 동시적 총체적 욕구충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보편화됨
 - '디지털기술'이 기반이 된 기술의 융합이 확산됨
 - 산업의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산업의 지형이 바뀜

-
- 직업 세계도 큰 변화를 겪음
 - 요구되는 직업능력에도 변화가 생김

※ 카알 베네딕트 프레이 교수, <고용의 미래> 보고서 (2013)

“자동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20년 이내에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

“향후, 대학 졸업후 개인의 직업 변경 4~5회”

지식사회의 지형 변화

- 지식·정보의 산출, 복제, 유통이 매우 용이
 - 산출되는 지식·정보의 양이 천문학적으로 급증
 - 생산되는 지식·정보의 유통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 미
약
 - 지식·정보의 효용기간 급속히 단축
 - 감각적 지각작용이 논리적 사유활동보다 우세
 - 탈맥락적 무기원적 파편적 지식·정보의 범람
-
- 융복합적 지식에 대한 수요 급증
 - 다학문적, 학제적 융복합적 연구 중요

대학의 긴급 과제 1: 교육과정 개편

- 교육과정 재편: 두 가지 대립되는(?) 요구를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 “산업 수요도 무시하지 않고, 학문 기반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투 트랙’을 다 살리는” 길 찾아야.
- 기초학문분야 학업(강화 심화된 본래의 교양교육)을 토대로 응용학
문분야 학업(직업교육 성향의 각 전공교육)을 수행토록!
= “교육과정의 성층화”
- “산업 수요에 부응하여 직업지향적 응용학문 교육을 받는 모든 학
생들이 기초학문분야의 교육도 함께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교육과
정을 편성해야”

* 기대 성과:

- 직업능력의 함양도 보완, 강화
- 기초학문 분야의 학술적 교육적 활동을 보전
- 기초학문분야 교수진의 안정적 확보
-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기반 마련
- 대학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견지, 대학다운 대학 견지

※ 현 체제 아래에서는 기초학문 분야 점차 위축, 약화

대학의 긴급 과제 2: 교육구조 조정(재구조화)

교육구조 재조정:

- 상기 재편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확실히 운영키 위해
- 기초학문분야 학과와 응용학문분야 학과를 구분하고!
- 기초학문분야 교육기관과 응용학문분야 교육기관을 차별화해야!
- 이들을 평면적으로 병렬시켜 놓고 선택하게 하면 기초학문분야의 위축은 불가피

새로운 대학교육행정의 기본정책: "학사운영의 유연화"

※ 아래 3항을 별개로 취급, 유연하게 관리

- ① 교수 소속 교무행정 및 교수활동의 단위, 학과
- ② 학생의 학업 트랙 (전공-부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
- ③ 신입생 모집 단위 (학과단위, 소계열, 대계열)

‘학사운영의 유연화’ + ‘교육과정의 성층화’

→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직업지향적 학업을 수행하는 다수의 학생들도 불가피하게 기초학문분야의 교육을 받게 하도록

→ 이 교육의 영역이 확장,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적 기반도 확고해짐

- 현행의 ‘단층형’ 교육구조: 기초학문분야 전공과 응용학문분야 전공을 평면에 병렬시켜 놓고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

‘교육구조의 다양화’

* 가장 이상적인 교육구조 :

- 학생을 ‘전공학과’에 ‘전속’시키지 않고
- 기초학문 분야에서 여러 학문을 다양하고 균형 있게

교육받게 하는 미국식 University College(학부대학) 또는 Liberal Arts College(자유학예대학)

Liberal Education:

An approach to college learning that empowers individuals and prepares them to deal with complexity, diversity, and change. This approach emphasizes broad knowledge of the wider world (e.g., science, culture, and society) as well as in-depth achievement in a specific field of interest.

It helps students develop a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strong intellectual and practical skills that span all major fields of study, such as communication, analytical, and problem-solving skills; and the demonstrated ability to apply knowledge and skills in real-world settings.

Artes Liberales:

The historical basis for the modern liberal arts, consisting of the trivium (grammar, logic, and rhetoric) and the quadrivium (arithmetic, geometry, astronomy, and music).

Liberal Arts:

Specific disciplines (i.e., the humanities,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 Universities
<http://www.aacu.org/leap/what-is-a-liberal-education>

"The notion that a liberal arts education and career preparation are incompatible is being widely discredited. The very characteristics that employers value in job candidates are those cultivated at liberal arts colleges. Employers want job applicants who possess critical thinking and analytical reasoning skills, have the ability to analyze and solve complex problems, can effectively communicate orally and in writing, and demonstrate proficiency in applying knowledge and skills in real-world settings, according to "It Takes More Than a Major: Employer Priorities for College Learning and Student Success", a 2013 study by AAC&U and Hart Research Associates. Now, a new study concludes that a liberal arts education is a worthwhile economic choice, based on data examining the payoff of a liberal arts degree over the course of a career. How Liberal Arts and Sciences Majors Fare in Employment is a joint project of AAC&U and the National Center for Higher Education Management Systems."

*Bobby Fong, president of Ursinus College, The Philadelphia Inquirer
(February 2, 2014)*

※ 이미 현재 시도되고 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방식:

- ① 직업교육의 성격이 강한 응용학문 분야의 전공 학생에게 기초학문 분야에서 제 2전공 또는 부전공을 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복수전공, 부전공)
- ② 응용학문분야의 학업과 기초학문 분야의 학업을 긴밀히 '연계'시켜 복합적으로 학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 (연계전공)
- ③ 기초학문 분야에서 균형 잡힌 학업을 수행하도록 '교양교육'을 그 본래 이념대로 정상화, 내실화, 강화하는 것

교양교육 이념의 실현

- 본래적 의미의 교양교육

Liberal Education + General Education

- 이 전체의 핵심: Liberal Arts 교육, 즉 기초학문 교육

- 교양교육을 그 본래의 이념대로 '기초학문 분야의 균형 잡힌 융복합 교육'으로 재정립해야!

기초학문분야 교육의 현실

- '전공학과'에 국한
- 대학원 연계성 교육과정, 즉 학자양성 교육과정으로
- 대부분의 학생은 전공학과 교육과 유리된 '교양과정'에서
- 그 '교양과정' 교육의 현실:
 - 1) 기획된 교육총량 부족 (교양학점의 부족)
 - 2) 본래적 이념 실종, 변질, 왜곡 (교양과목의 질적 저하)
 - 3) '시간강사'에 위촉 (교양교육 소홀)

'리버럴아츠' 교육의 전통

- 자유 학예 (artes liberals)
- 고전시대: 3학(언어적 학예), 즉 문법, 논리학, 수사학
4과(수량적 학예), 즉 대수학, 기하학, 음악학, 천문학
- 근대 이후: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기초학문)
- 21세기: 정보문해, IT소양

* 전문교육, 직업교육, 기술교육과 구별됨

*** 리버럴아츠 교육: 인간과 세계에 대한 치우치지 않은 안목과 다양한 영역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의 지적 능력을 함양= 심화 강화된 '교양교육'**

- 1. 교육 내용 - 거의 모두 기초학문분야**
- 2. 교수는 학문체계에 따라 설치된 학과에 소속, 그러나 학생은 특정 학과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원하는 학업을 수행**
- 3. 전공학업(major)을 하더라도 시기적 규제 없이 오직 학생의 의사에 따라 수행**

* 한국형 절충안

- (i) 학생을 학과에 소속시키는 현 제도는 당분간 유지. 장차 '학업의 유연성'을 도모, 신입생 모집 단위를 칼리지 전체로 확대.
- (ii) 각 학과 학생들은 전공학업과 병행하여 '공통의 교육과정', 즉 '리버럴아츠 핵심교육과정'을 이수토록.
- (iii) 각 학과의 고유한 '전공교육과정'에서는 졸업생의 취업 요구를 고려, 전공교육과정의 내용을 적절한 수준에서 변용.

※ 기대 효과

- 1) 대학의 학술적 활동에 대한 요구와 사회의 직업교육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
- 2) 직업교육과 교양교육을 겸전, 실제로 우수인재 양성
- 3) 취업 등 경력 준비에 유리한 학생 배출
- 4) 기초학문분야 교육의 내실화('전공'과 '교양'의 수렴-통합)
- 5) 기초학문분야의 교육-연구 지속, 확대 (해당 학과의 폐과 방지)
- 6) 기초학문분야 교수진의 지적 활력 제고
- 7) 대학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 공고화

※ 대전제:

- 기초학문분야 교수진의 능동적 참여
- 대학 구성원 전체의 상호 협조
- 대학 당국의 물심양면의 적극적 지원